

치아교정장치환자의 신체상 및 자기 존중감에 관한 연구

윤영숙 · 정영화¹

동주대학 치위생과, ¹손인치과의원

색인 : 신체상, 자기존중감, 교정장치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미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의 외모는 그 개인,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신체상의 불만은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유도되어 자기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21세기는 신체의 질환보다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로서 현대에 와서는 시대와 문화의 변천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기시 해오던 사고와 미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형수술의 기술 발달과 함께 대상자의 성형수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체상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느낌으로¹⁾ 사람은 누구나 자기자신에 대한 신체상을 갖게 되며 이러한 신체상은 태어날 때부터 확고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에 따른 성숙, 환경적 요소, 사회적 태도, 문화적 가치, 수술, 상해, 질병 등의 신체변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²⁾ 이런 신체상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자존심을 상실케 하여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상과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³⁾.

특히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정치료를 주제로 한 다량의 정보량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 교정치료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아의 배열은 대상자의 첫인상을 좌우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부정적인 신체상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이경희의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⁴⁾.

현재의 부정교합의 증가는 분명히 현대문명의 진전과 비례하고 있으며 전방이 돌출되고, 불규칙하거나 부정교합된 치아는 3가지의 문제를 환자에게 일으킬 수 있다. 첫 번째로 손상된 치아나, 안모의 심미적 문제, 두 번째로 구강기능의 문제(하악 운동시의 근육 부조화 또는 동통, 두개 하악 장애문제, 저작, 연하, 발음시의 문제 포함), 세 번째로 부정교합과 관련된 외상의 용이함, 두드러진 치주질환 또는 치아 우식증을 일으킬 수 있다⁵⁾.

유골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천년전 보다 현재 수 배 정도 더 부정교합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교합의 증가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부정교합이 증가하는 예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아교정을 위한 교정장치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을 알아보고 그들의 상호관계

와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신체와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는 환자들의 치료사정에 유의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아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신체와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대상자들의 이해하고 돕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특히 유의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1.3 용어정의

1) 신체상(Body Image)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느낌으로(Stuart, 198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각 신체 부분과 기능에 대하여 가지는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Secord와 Jourard에 의해 개발된 신체 만족도 도구(Body Cathrxis Scale)을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말한다.

2) 자기존중감(Self Esteem)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으로서(Coopersmith, 196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수용의 정도를 Rosenberg가 개발한 자기 존중감 측정도구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3) 교정장치

여러 가지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계적 장치물로서 여기에서 부정교합이라 함은 overbite, overjet, openbite, 전치 crossbite, 구치 crossbite, 절단 교합, inter-locking, crowding 등을 말한다⁶⁾.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교정 전문치과 병·의원에서 현재 치아교정을 위한 장치를 하고 있는 자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수락한 28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그 중 무응답 및 오기로 기록된 11부를 제외한 총 269부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질문지는 일반적 배경 6문항, 신체상 56문항(신체부위 47문항, 신체만족도 10문항), 자기존중감 10문항으로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신체상 측정도구

Secord 와 Jourad에 의해 개발 수정되었고 Secord 와 Jourad 및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신뢰도가 인정된⁷⁾ 신체상 측정도구는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5단계로 측정하는 Likert Scale로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장효순⁸⁾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중 관절부위의 항목(어깨관절, 엉덩이관절 등)을 추가한 56문항을 선택하였으며²⁾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SPSS의 Cronbach's Alpha Reliability를 분석한 결과 $\alpha=0.940$ 으로 산출되었다.

신체부위의 각 문항을 매우 불만스럽다, 불만스럽다, 그저 그렇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중 대상자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만스럽다 1점 -- 매우 만족스럽다 5점으로 평점하여 최저 47점부터 235점까지 얻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서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만족도 1점에서 5점까지 평점하여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얻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기존중감 측정도구

대상자의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한 자기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병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개발당시와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이경희 1992, 신뢰도 $\alpha=0.737$)⁴⁾. 본 연구의 신뢰도는 0.740이었다.

총 10개 문항으로 된 이 도구는 5단계 평점(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된 척도이다. 긍정형, 부정형 문항이 각 5개로 구성되며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었고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과 자기존중감 정도의 비교는 평균, 표준편차, ANOVA, t-test로 검증하였으며 (2)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정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체상을 비교한 결과 의미있게 나타난 특성은 연령($p=0.003$)과 성별($p=0.043$),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p=0.004$)였으며 사고경험, 치과방문경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1, 3, 4).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신체상에서는 만 19세 이하인자($M=3.313$)가 만 20세 이상인 자($M=3.132$) 보다 높은 점수

를 보여($p=0.007$) 10대들이 외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의 신체상은 남자($M=3.270$)가 여자($M=3.144$)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p=0.045$)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사람들과의 어울림 정도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울림을 좋아하는 대상자는 신체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p=0.002$).

사람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따른 신체상을 측정항목들 중 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입술, 얼굴생김새, 목, 어깨, 등, 식욕, 성별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상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부위는 치아로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신체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가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외적으로 좋은 용모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에 따른 총 신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상을 측정항목들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목($p=0.030$), 옆모습($p=0.010$)으로 나타났다.

<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

특성	구분	실수	신체상 정도		
			M±SD	t	P
연령	19세이하	61	3.313±0.424	2.979	0.003**
	20세이상	207	3.132±0.415		
성별	남	61	3.270±0.468	2.031	0.043*
	여	207	3.144±0.406		
사고경험	유	52	3.193±0.407	0.365	0.715
	무	215	3.160±0.427		
치과방문경험	유	259	3.180±0.413	1.610	0.109
	무	8	2.036±0.000		

* $p<0.05$, ** $p<0.0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정도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연령($p=0.041$), 사고경험($p=0.012$),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p=0.003$)이며, 성별, 치과방문경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표2, 3, 4)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고경험도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정도

특성	구분	실수	자기존중감 정도		
			M±SD	t	P
연령	19세이하	61	3.833±0.543	2.052	0.041*
	20세이상	207	3.668±0.544		
성별	남	61	3.741±0.558	0.555	0.579
	여	207	3.697±0.545		
사고경험	유	52	3.539±0.525	-2.538	0.012*
	무	215	3.750±0.543		
치과방문경험	유	259	3.708±0.541	0.205	0.768
	무	8	3.650±0.780		

*p<0.05, **p<0.01

<표3> 일반적 특성(사람들과의 어울림)에 따른 신체상, 자기존중감의 정도(ANOVA)

	항목	SS	df	MS	F	P
신 체 상	입술	8.060	3	2.687	3.330	0.020*
	치아	0.382	3	0.127	0.123	0.947
	얼굴생김새	7.849	3	2.616	3.675	0.013*
	목	4.651	3	1.550	2.860	0.037*
	어깨	7.997	3	2.666	4.019	0.008**
	등	4.471	3	1.490	2.815	0.040*
	키	5.189	3	1.730	1.552	0.202
	체격	6.137	3	2.046	2.581	0.054
	옆모습	2.374	3	0.791	1.047	0.372
	식욕	15.208	3	5.069	5.961	0.001**
	성별	6.275	3	2.092	3.376	0.019*
	신체만족감	5.532	3	1.844	6.534	0.000**
	합 계	1.960	2	0.980	5.673	0.004**
	자기존중감	3.221	2	1.610	6.339	0.002**

*p<0.05, **p<0.01

<표4> 일반적 특성(종교)에 따른 신체상, 자기존중감의 정도(ANOVA)

	항목	SS	df	MS	F	P
신 체 상	입술	6.545	4	1.636	2.006	0.094
	치아	0.844	4	0.211	0.203	0.937
	얼굴생김새	6.445	4	1.611	2.238	0.065
	목	5.867	4	1.467	2.719	0.030*
	어깨	2.479	4	0.620	0.903	0.463
	등	3.445	4	0.861	1.609	0.172
	키	4.101	4	1.025	0.913	0.457
	체격	2.803	4	0.701	0.867	0.484
	옆모습	9.827	4	2.457	3.363	0.010*
	식욕	5.818	4	1.455	1.636	0.166
	성별	2.700	4	0.675	1.062	0.376
	신체만족감	0.749	4	0.187	0.621	0.648
	합 계	0.495	4	0.124	0.688	0.601
	자기존중감	1.147	4	0.287	1.087	0.364

* $p < 0.05$

3.2 대상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391$, $p=0.000$). 이것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대상자는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5> 대상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자기존중감
신체상	0.391**

** $p < 0.01$

4.총괄 및 고안

4.1 신체상(Body Image)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자신의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상에 대해 Brunner와 Suddarth는 신체상은 의식, 무의식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아평가 및 정신건강 척도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건강상태의 변화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반응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⁹⁾, Stuart는 신체상 또는 신체개념(body concept)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무의식적, 의식적 태도이며 신체의 크기, 외모, 기능 및 잠재력에 느낌과 과거와 현재의 감각을 표현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신체상의 변화는 정서적인 긴장을 유발하거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자존심을 상실케하여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한다¹¹⁾¹⁰⁾.

McCloskey는 신체상이란 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신체기능, 지각능력, 운동성

포함한 신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 및 감정과 지각의 끊임없는 변화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¹¹⁾.

Shilder는 신체상을 신체모습에 대한 정신적인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감각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생리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정신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이 신체상을 통해 호기심, 감정, 사회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의무감 및 윤리감까지 표현한다고 하였으며¹²⁾,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Taggart는 신체상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모습이며 전체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¹³⁾, O'Brien은 정상적인 신체상의 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는 부모의 태도, 동료집단, 사회, 가정 분위기 등이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며 환경적, 문화적 변수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Fedoron은 신체상과 신체자아, 신체형상을 구별하여 신체상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체에 대해 변화하는 개념이며, 신체자아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개인의 신체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체형상은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일정한 지식으로 신체상, 신체자아, 신체형상은 모두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²⁾.

Wassner는 신체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다음 세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성격, 성, 연령, 사회문화적 배경, 신념, 가치관을 들고 있고, 둘째로는 변화에의 내용 및 속도, 셋째는 관련된 의료팀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팀의 이해 및 지식은 환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¹⁵⁾.

신체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형재건 수술을 원하는 환자나 외상환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졌으며 이들은 특히, 신체의 기능보다는 신체외모에 더 부정적인 신체상을 나타내었다⁴⁾¹⁶⁾¹⁷⁾

성인에게서 질환이나 수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은 신체상에 대한 자기평가가 상당히 낮아 있었고 수술받기를 원하는 부위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¹⁸⁾.

이상으로 볼 때, 신체상은 개인이 발달시켜온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으로 질병, 수술 및 사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정체감과 자존심, 자기가치의 근본이 되는 인간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렇듯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신체상은 정신적인 현상으로, 항상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고 일생을 통하여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자존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치아교정장치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을 비교한 결과 의미있게 나타난 특성은 연령($p=0.003$)과 성별($p=0.043$),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p=0.004$)였으며 사고경험, 치과방문경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Wassner의 첫 번째 변수인 연령, 성, 성격이 신체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과 일치하였다.

4.2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Andrew는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이 갖는 신념과 느낌이며, 행동방향을 결정시켜주게 하므로 인간행동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⁴⁾, Albrecht도 자아개념을 자기 존중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성격에 대한 동일시까지 포함하며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측면이라 하였다¹⁹⁾.

Stuart는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여부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분석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수행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으며,

Rosenberg는 자기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긍정, 부정의 태도로 정의하였다²⁰⁾. Coopersmith는 자기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며 Coopersmith가 말하는 자기존중감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평가상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보다는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자아평가와 관련이 있으나 평가의 신뢰도나 일관성, 그리고 그것이 내려지는 상황에 있어서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 자기존중감은 경험이 다른 영역에 걸쳐 나이, 성별, 다른 역학적,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자아평가는 개인이 개인적 표준이나 가치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 능력, 태도 등을 검사하며 가치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판단적 과정이라는 것이다²¹⁾²²⁾.

타고난 특성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강한 것이라 하여 Erikson(1981)의 자기존중감은 자신과 밀접한 사람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²⁰⁾.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제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환자가 여자환자에 비해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존중감에 관한 일 연구(성취기대)를 보면 자기존중감은 직업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²³⁾.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행위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여, 이 자아존중감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냈다²⁴⁾.

이상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환, 성별, 외부적인 사건, 경험, 가족의 지지 등 여러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여러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중 치아교정장치환자를 선택하여 연구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정도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연령($p=0.041$), 사고경험($p=0.012$),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p=0.003$)이며, 성별, 치과방문경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김²³⁾의 남녀성별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좀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3 신체상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하여 볼 때, Roy는 자아는 개인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 자아는 윤리적, 도덕적 자아, 자기일관성, 자기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자아는 신체상이라고도 하며, 신체 기능능력과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²⁵⁾. 자기존중감은 이런 자아개념의 통합이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고 신체조절 능력과 기능은 자기가 처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Stuart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수용적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다고 하였고 신체 기관의 상실 및 기능의 상실은 열등한 신체상 및 열등한 자아개념으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Jourard 와 Secord도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높은 자기존중과 사람들의 신체용모와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³⁾.

두 개념이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연구로는 장효순은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환자일수록 자기개념이 낮다고 하였고⁸⁾ 이경희는 미용성형술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대상자는 낮은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⁴⁾. 신체의 선택부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Mohoney & Finch의 연구는 얼굴의 특징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적 요소가 자아존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²⁶⁾. 본 연구에서도 치아교정장치환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대한 이해 및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치아교정장치환자의 신체상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의 상담과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자는 치아교정을 위해 교정장치환자의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신체상,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신체와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교정전문치과병·의원의 환자 269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Secord 와 Jourard에 의해 개발된 신체만족도구와 Rosenberg의 자기존중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에 의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을 비교한 결과 연령($p=0.003$), 성별($p=0.043$), 사람들과의 어울림 정도($p=0.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종교, 환자의 사고경험, 치과방문경험, 치과방문횟수에 따른 신체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연령($p=0.041$), 사고경험($p=0.012$),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p=0.002$)이었고, 성별, 치과방문경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91$, $p=0.000$). 즉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아교정장치환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 간에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대상자가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사람들과 어울림의 유무를 고려한 효과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세움이 바람직하다.

제언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장치환자를 위한 좀 더 유용한 신체상과 자존중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같은 대상자의 교정 전후의 신체상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연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가 시도하고 있는 교정의 원인을 찾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Stuart and Sundeen. Principle and Practices of Psychiatric Nursing. St.Louis : Mosby. 1983.
- 2). 황호선. 치아교정장치를 한 청소년의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3). 신유정. 성형수술환자의 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4). 이경희. 미용성형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5). 김택수 외3인. 치과교정학. 서울:고문사:2002.
- 6). 丸山剛郎. 임상생리교합. 서울:지성출판사:1993.
- 7). 장효순. 만성질환이 자아개념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 천식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8). 장효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고혈압 환자를 중심으로. 예수간호전문대학교 논문집 1985: 3:119-142.
- 9). Brunner LS, Suddarth DS. Text Book of Medical Surgical Nursing 3rd ed. Philadelphia, London, Toronto:J. B. Lippincot Company:1982:191.
- 10). Rubin R. Body Image and Self Esteem. Nursing Outlook 1968:16(6):20~24.
- 11). McCloskey JC.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in nursing practice. Nursing 1976:6(1):68~72.
- 12). Shontz, Franklin C. Body Image and its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Medicine 1974:5(4):461~472.
- 13). Taggart, Marge. Body Image Looking Beyond the Mirror: Part 1(Norm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Practical Nursing 1977:32-33.
- 14). O'Brien, Jayne. Mirror, Mirror, Why me?. Nursing Mirror 1980:150(17):36-37.
- 15). Wassner, A.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body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1982:29(3):86~90.
- 16). 김순이. 암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약물요법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7). 조명옥. 외상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8). 박미희. 질병과 수술이 성인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9). 박재현. 입원한 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20). 송인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1990.
- 21). Cooperamith S.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1968:2:96~106.
- 22). 심현옥. 학령기 및 청소년기 당뇨병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와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3). 김애리. 자아존중감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24). 이태화.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5). Roy, Sister Callista. Adaptation a Basis for Nursing Practicce. Nursing Outlook 1971:19(4):254~257.

Abstract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self-respect of patients who have teeth braces

Young-Suk Yoon, Young-Hee Jung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¹*Sonin Dental Clinic*

Key words: body image, self-respect, teeth brac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ffective intervention of the patients complaining of their aspects and themselves and to help dental hygienists of keep them remaining healthy effectively.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s from 269 people including the outpatients requiring regular care from dental clinic from December 10, 2003 to January 10, 2004.

Secord & Jourard's apparatus which measures the degree of self-satisfaction to the body image and Rosenberg's equipment measuring the degree of self-respect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a computerized program named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ncluding t-test, ANOVA and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body image and the sense of self-respect were decided by the various characters of the inquired person. Comparing the inquired person's body image in terms of general background, they showed a big difference in sociability($p=0.004$), age($p=0.003$), sex($p=0.043$). However the experience accident any and the frequency of visiting dental clinic had little effect on deciding their body image. Comparing the self-respect in terms of the general background, the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bility($p=0.002$), age($p=0.041$), experience of any accident($p=0.012$), whereas age, sex, religion, the frequency of having treatment didn't show any difference with them.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their body image and the sense of self-respect was positively correlated($r=0.391$, $p=0.000$).